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은혜 넘치는 '97 겨울계절학교

성경공부와 신앙훈련 통해 영적 성장 도모
18개 교회학교서 1월 20일부터 3월초까지 실시

해마다 방학을 이용하여 일년에 두 번씩 열리는 계절학교 및 수련회가 금년 겨울에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대학부 수련회(1월 20-23일)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부서별로 열리게 된다.

교회학교 각 부서의 형편과 특성에 따라 1월 20일에서 3월 1일에 걸쳐, 하루 또는 길게는 나흘까지 교회와 충현기도

면서 한 해의 새로운 결심과 각오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는 학교의 학기가 2월 말에 끝나고 3월에 시작함에 따라 새출발의 의미가 3월에 있고 또한 겨울방학 기간에는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는 이들이 적지 않아 학년말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금년도 전체



원에서 열리게 될 겨울계절학교는, 이미 2, 3개월 전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임을 가지며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알찬 진행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번 겨울은 예년과는 달리 수은주가 한층 내려간 쌀쌀한 날씨로 인해 겨울의 맛을 만끽할 수 있는 수련회와 계절학교가 기대된다.

여름계절학교가 야외에서 교육과 교제,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자연, 서로 간의 관계, 공동체에 초점을 둔 신앙훈련의 기회라면, 겨울수련회는 하나님과 개인간의 관계에 집중하는 신앙훈련의 기회인 것이다. 따라서 각 부서는 이런 계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겨울계절학교는 한 해를 시작하

적으로 그런 형편이다. 그러나 새학기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대학부와 청년부는 1월 중에 겨울계절학교를 실시하여 한 해의 출발을 새롭게 하고 있다.

교회학교 교육의 어려움을 말한다면 신앙으로 충분히 교육할 시간의 부족을 단연코 첫번째로 손꼽을 것이다. 이런 교회학교 교육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해마다 겨울과 여름에 열리는 계절학교는 교회학교 교육에 아주 소중한 장이 아닐 수 없다. 막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겨울계절학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도들의 정성어린 기도와 사랑의 관심이 요구된다. 교회학교 각 부서의 겨울계절학교의 개요는 오른쪽 표와 같다.

(▲ 대학부 겨울수련회 한 장면)

부서	주제표어	강사	기간	장소
영아부	예수님을 닮은 아기	박도수, 황성철	2. 24-25	선교관 103호
유아부	슬기로운 어린이	계선화	2. 24-25	교육관 212호
유치부	예수님처럼 자라자	한영준	2. 24-26	교육관 205호
유년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어린이	염현일	2. 24-26	교육관 314호
초등부	예수님을 잘 아는 어린이	한승일	2. 24-26	교육관 307호
소년부	하나님의 기쁨	박노철	2. 24-26	교육관 407호
중등1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김희수	1. 27-29	충현기도원
중등2부	예수님 때문에	정광욱	2. 26-28	충현기도원
중등3부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홍성	2. 26-28	충현기도원
고등부	기쁜 우리 젊은 날	이국병	2. 24-26	충현기도원
대학부	히브리인의 신앙 한국인의 신앙	장봉생	1. 20-23	충현기도원
청년1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김동석, 박형용	1. 23-25	복지관
청년2부	믿음 자유 그리고 생명	김정우, 김철해	3. 3-4	갈릴리홀
장년1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채우자	박형용	2. 22-23	갈릴리홀
새가정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성봉환	2. 18	교육관 201호
사랑부	참 좋으신 예수님	이준우	3. 1	교육관 107호
에바다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준우	2. 26-28	교육관 109호
영어교육부		이승림	3. 1	복지관

3부예배 인원 급증

주차문제로 애로

직분자는 3부예배 시간을 피해주기를

1997년 들어 대예배 인원이 늘어 나면서 특히 3부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3부예배에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주차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교회 주변에 한번에 주차 가능대수는 1500여대인데 현재 3부예배시는 1500대를 훨씬 웃도는 차량들이 모여드는 형편이다.

차량관리부에서는 주일 1, 2부에 오는 직분자들의 차량은 제2교육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여 줄 것을 간절히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가능하면 직분자들은 3부예배 시간을 피해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주차문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97년도 제1기

출판국 기자 모집

충현교회 출판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간충현과 계간충현을 함께 꾸며나갈 헌신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열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1. 모집부문: 사진기자 0명
취재기자 0명
2. 자격: 충현교회 세례교인으로
대학부 이상의 모든 성도
3. 제출서류: 이력서 1통
(교적번호 기재)
4. 문의: 충현교회 출판국
(선교관 303호 교환 516, 348번)

학습, 세례식 안내(교육 및 문답)

요일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9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현상민 목사)	교육관 307호	구원론 (현상민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란? (김찬곤 목사)	교육관 309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2월 16일 (주일)	찬양예배	학습, 세례식(본당)					

새가족부에서

새가족과 인도자에게 알립니다

97년부터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새가족들께서는 새가족부에 등록하시고 반드시 4주 이상의 새가족부 교육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역자의 입적심방이 있게 되고 이 심방을 받게 되면 충현교회의 정식 교인으로서 교적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구의

심방이나 교인으로서의 특권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새가족부에 등록하지 않은 새가족들은 새가족부에 등록해서 교육과 안내를 받으시고, 앞으로 새가족들을 인도하시는 성도들은 새가족들을 새가족부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악한 자를 대접하는 자

(시편 41:1-13)

다윗 왕은 편안한 때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의 고생을 잊고 충신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책망을 듣고 정직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지옥에 가는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대신 무서운 형벌을 주십니다. 만아들은 강간죄를 범하고 셋째아들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합니다. 가정에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사람 앞에 망신을 당하며 마음의 고통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형을 죽이고 도망갔던 압살롬이 돌아와 다윗 왕은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 왕의 몸에 병이 들었고 압살롬이 또다시 반역을 도모합니다. "아버지, 제가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갔을 때 도망간 곳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시면 이 몸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했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를 못드렸습니다. 이제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 하여라"

이렇게 허락을 받은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이름 아래 많은 군인을 소집하여 훈련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쳐올라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궁을 떠나 도망가면서 부르는 찬송이 시편 41편입니다.

1. 악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받는 복

(1) 범사를 돌보아 주십니다

세상에는 항상 빈부가 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땅 위의 많은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는 아침을 하고 약한 자에게는 멸시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옳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김하게 해드리면 안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하여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자비함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일은 하나님께 꾸이는 일이므로 이자를 많이 붙여서 돌려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공효는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한 인격자가 받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 동안은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편안할 때 건강할 때 우리보다 약한 자를 돌보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범사를 해결하는 복을 주십니다.

(2) 육신의 건강을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원하지 아니해도 몸에 병이 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병이 드는 원인은 첫째, 죄의 값입니다. 둘째, 어리석음을 인하여 몸의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듭니다. 셋째, 하나님의 특별한 신 섭리로 병이 듭니다(요 9장). 넷째,

큰 일을 한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몸에 병을 주십니다(고후 12장).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 약한 자를 돌보는 자를 그 병 가운데서 불행으로 끝까지 가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불들어 주시며 몸의 건강과 아울러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영혼에 은혜를 주십니다.

(1) 병든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다윗 왕은 오랫동안 마음의 고생을 하고 가정의 어려운 일을 만나며 자신은 중한 병에 들어 마침내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몸의 건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니고 원수를 처치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먼저 죄를 회개하며 영혼을 고쳐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가 범한 죄값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를 숨기려고 핑계하며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에 병이 듭니다. 영혼에 병이 들게 되면 양심까지도 썩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존경도 떠나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원수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자입니다. 또 영혼에 병이 들면 판단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어두워져서 판단력을 상실하므로 육신은 비록 건강하고 권세가 당당해도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욕이 되고 사람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결국에는 육신까지도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 반드시 그 죄를 먼저 회개하여 죄로 인하여 병든 영혼이 우선적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 원수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에게서 건져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이 꾀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다윗 왕의 원수들은 의로운 권세자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집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다윗 왕이 병들었을 때에 찾아와서 거짓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병이 어느만큼 중해졌나, 왕의 군인이 얼마나 있나, 왕이 바깥의 사정을 얼마나 알고 있나를 살살이 정탐하고 돌아가서 모략을 세우고 왕의 병이 중하여 회생치 못할 것이라고 거짓 선전을 했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미리 흔들려 놓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

편안할 때에 욕심 채우느라고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아침하고 악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 날이 되어도 과거에 선한 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윗 왕의 모사 아히도벨을 꾀어 반란을 꾸몄습니다. 아히도벨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에 가장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 왕에게는 치명적인 어려움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까지 같이 일하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돌보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셔서 죄를 용서하셨고 또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원수를 망하거나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됩니다. 원수가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안됩니다. 다윗 왕은 원수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한 자가 성공하는 길을 막아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3)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옵소서

다윗 왕은 원수에게 쫓겨가는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죽이려던 악한 자들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사라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요 의인을 돌보시는 증거가 될 줄을 믿은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 왕과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품 안에 주소를 정하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 일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악마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을 무서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한 분 만을 무서워하고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국무총리가 되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만을 무서워하며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3. 빈약한 자의 찬송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찬송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 속에 기도를 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영혼에 평안이 왔습니다. 몸은 비록 병 중에 있어 고생을 했지만 기도하여 영혼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 찬송이 나온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오직 높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 왕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재산도 변하고 권세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편안할 때에 욕심 채우느라고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아침하고 악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 날이 되어도 과거에 선한 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다윗 왕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선교수련회를 다녀와서 ▶

잊지 못할 미래를 위한 훈련

이수현

이번 선교수련회는 뜻하지 않게 아무런 영적 준비도 없이 따라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방학을 이용해 한달 반 동안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교회 수련회에 참가하고픈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였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지요.

중1때 친한 친구따라 충현교회에 나오면서 입은 사람들에게 '모태신앙'이라 자랑은 하였지만 사실 큰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찬양대 봉사도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였지, 진정 주님을 위해 한 봉사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국수 먹으러 뛰어가던, 너무나 철없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 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며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도 많이 자라가는구나'라는 엉뚱한 착각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에는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없었으며 가장 중요한 주님에 대한 감사가 빠진, 어려움을 내게 주신 주님을 원망하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찬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너무나 친절한 사람들, 좋은 교육 등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런 것을 깨닫기엔 저의 마음은 너무나 오염되어 있었고, 신앙도 보잘 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수련회를 다녀오고난 지금, 전 한순간, 일본일초가 감사로 넘칩니다.

1월 19일 그러니까 떠나기 하루 전 선교수련회에 가기로 큰 결심을 했습니다. 몸도 건강치 않은데도 추위를 너무나 잘 타기에 '가면 굉장히 추울거야'라는 말에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선교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싶었고 기도원에 가서 실컷 기도도 해보고 싶었고 노방전도도 해보고 싶어서 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의 믿음은 너무나 어려서였을까요? 그 와중에도 돌아가기 전 '하나의 추억거리'를 만들겠다는, 밤새 친구들과 얘기하자는, 주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않을 계획도 있었으니까요.

1월 20일 교회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아들을 보니, 그런 깊은 신앙을 소유한 이들이 한없이 부러웠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

어났습니다.

시작은 단돈 천원으로 수서역에서 충현기도원까지 찾아가야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막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할렐루야!). 가면서 대신자 카드도 작성해야 했는데 처음엔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 머뭇머뭇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고된 훈련 후에 먹은 저녁식사, 너무나 꿀맛이었습니다. 식사 후, 이국병 목사님의 부흥회와 조별 기도회, 모임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져가는 그 충만함에 너무나 기뻐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월 21일 수련회 둘째날 아침 금식이라는 고된 훈련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영준 전도사님과 '혼전순결 서약 예배'를 드리고, 세계 선교에 관한 설교도 들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준비단계, 언어 문제, 문화, 생활습관의 차이 등등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이틀동안 갈고 닦은 우리의 찬양과 율동으로 주님께 영광드리기 위해 이천으로 찬양집회를 나갔습니다. 옷을 겹겹이 입고 나갔음에도 열하 10도를 밀도는 추운 날씨 때문에 온몸이 다 얼어 붙었고, 두 발은 얼음덩어리 두 개로 변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 불만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많은 이들을 보며 전 너무나 큰 그 어떤 부흥회나 집회에서도 받을 수 없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서 불만 한마디 없이 열심히 찬양에 임했고, 미래를 위한 훈련의 일종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중간에 그 자리에 쓰러지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잘 견디어냈습니다.

1월 22일 수련회 마지막날 일정이 바뀌어 노방전도 대신 이승림 목사님과 '96 어바나 선교대회에 관한 비디오를 보면서 인종, 문화, 언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 말씀을 들었으며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 너무나 많이 변화하고 큰 은혜, 감동, 사랑을 받은 저도 이 시간에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 시

간을 통해 1-2년 전부터 생각해 오던 선교사가 되어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는 저의 마음을 주님께 전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도 주님을 위해 쓰고 싶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한번

의 찬양집회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졌습니다. 전날보다는 포근한 날씨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집회 후 맛있는 만나의 시간을 가진 후,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할렐루야!).

이번 선교수련회는 저의 평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불규칙했던 식사와 혹독했던 날씨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셨던 목사님과 전도사님, 언 몸으로 찬양집회를 인도했던 리더들, 반주자들, 저의 기도제목을 하나 하나 들어주며 기도해 주었던 친구들과 선배들, 그밖에 모든 분들께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고 그런 아름다운 영혼

들을 만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그 분들을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이제 저는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또 다른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주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참토 많이 나아진 것 같고 한동안 잃었던 웃음도 되찾았고... 돌아가면 변한 게 모습에 많은 분들, 특히 저의 가족들이 놀라워 하겠죠. 덕분에 또다른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에서 찬양이 끊기질 않네요.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수현 학생은 중등1부에서 신앙 생활하다가 현재는 뉴질랜드로 이민감)

◀ 춘천소년원을 다녀와서 ▶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윤세영

(대학부 교사)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간 열렸던 춘천소년원(현재는 신촌중학교라 함)의 겨울성경학교는 짧은 행사였지만 나름대로 저에게는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첫날 개회예배에서 전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결과는 예상밖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밝게, 우렁찬 '아멘' 소리와 힘찬 박수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 전 그것이 훈련된 결과란 것을 알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밖에서 온 손님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지 결코 성령님을 반기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실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영의 분별을 요하는 시점이었습니다. 4박 5일간 전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이 세 가지만을 전했습니다. '아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계속 '아느냐?'고 질문하면 '모른다'고 합니다. '아까 왜 안다고 했느냐?'고 다시 물으면 그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마치 딱딱한 절결 속의 알갱이처럼 그들은 그들의 진실보다는 분위기에 따라 매 순간을 딱딱한 껍질을 잔뜩인 양 위장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처럼 '어린 유'를 상대하기 위해 여러 선생님들은 금식과 기도로 더욱 중무장했습니다. 영적 전쟁 중 가장 치열한 고지점령 전투가 그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땀과 배앓는 피비린 내 나는 영적 싸움에 계속될 때 그들의 예배 모습이 점차 바뀌었습니다. 첫날 허리를 펴고 목사님을 주시하던 모습과는 달리 고개를 숙이고 마치 딴 생각하는 사람처럼 집중하지 못했

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주의 종을 통해 반사되자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죄를 명확히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아파 눈물 짓다가도 옆 친구들 눈치를 보며 제대로 울지 못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변화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날 세례식이 거행되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물세례와 불세례(성령세례)가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몇 친구에 한해서 일어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보다도 훨씬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끝난 이 시점에서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온 이유를 보면 하나같이 결손가정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집도 부모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곳이 낫다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급 이 글을 읽는 분은 누구나 집도 있고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혹 이것이 없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아파 아버지되시는 하나님에게 집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집도, 부모님도, 하나님도 없는 친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이 잘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가장 큰 무기는 기도뿐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토막소식

▶ 영아부에서는 오는 2월 23일(주일) 새친구 초청 잔치를 실시하며, 24일부터 있을 겨울 계절학교를 위한 교사 준비기도회를 20일(목) 오후 6시 30분에 갖는다.

▶ 대학부에서는 오는 2월 16일(주일)부터 4주 동안 NMC 대원을 위한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신입대원들의 필수 과정이기도 한데, NMC 대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한편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루터홀에서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 사회를 위한 소명을 새롭게 다지고 헌신을 결단하게 될 것이다.

▶ 청년1부에서는 오는 2월 16일(주일) 특강을 실시한다. 강사는 김정우 목사(협동목사, 청년2부 지도)로, 시편 110편을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 청년2부에서는 오는 2월 25일과 26일에 열리는 수양회때 찬양으로 봉사할 대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봉사를 원하는 회원은 찬양부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 새가족부에서는 오는 2월 13일(목) 오후 7시 충현기도원에서 실, 처, 과장기도회를 갖는다.

한편 오는 2월 16일(주일)에는 처벌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실시한다. 이 대회를 열심히 준비한 새가족들은 찬송가 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다.

▶ 선교위원회에서 <'97선교충현>과 선교사별 기도카드를 제작하여 선교위원회실(선교관 405호)에서 배포한다.

충현복지관 훈련생 모집

1. 정신지체인 직업훈련생 모집

- 모집대상: 정신지체 3급으로 만 18세에서 35세의 성인 정신지체인
- 모집분야: 직업전훈련반 2개반 24명(선착순 마감)
- 서비스 기간: 최저 2년에서 최고 5년까지

2. 집단지도 프로그램(징검다리교실) 대상자 모집

- 모집대상: 학교나 그밖의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35세의 성인 정신지체인
- 모집기간: 1997. 2. 1 - 28
- 서비스 기간: 주 2회씩 1년간
- 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훈련, 보호작업훈련 등

전화문의: 충현복지관 564-4885, 562-054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호주 이기성 평신도선교사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위원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난 12월 말 인도에서 시드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6개월간 집을 떠나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무척이나 값진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6개월간의 경과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3개월은 호주 서부에 있는 서부호주 주의 수도인 퍼스(Perth)에서 열린 YM캠프에 참석했습니다. 이 캠프에서 선교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앙 훈련과 함께 현지 선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간단한 복음적인 드라마와 댄스, 팔막한 설교, 간증, 현지인들에게 가르칠 질병에 대한 간단한 예방법과 치료 방법 등을 익히고, 특별히 언어와 풍습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팀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훈련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처음 한달간은 저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 스타일과 한국 교회와는 판이한 예배 스타일 등으로 인한 적응과 이해가 어려웠고 또 연령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의 차이, 서로 다른 문화 배경으로 인한 갈등 또한 극복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호주에서도 제일 호주적이라 할 수 있는 퍼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캠프이기에 다민족주의, 다문화주의를 주장하였지만 그래도 인종적인 갈등은 잔존한 듯합니다.

퍼스에 있는 동안 여섯 개의 한인 교회와 여섯 개의 주목받는 호주 교회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도 무척 큰 소득이었습니다. 앞서는 호주 교회와 한인 교회를 비교할 수 있었고 한국 교회가 21세기를 앞두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좋은 참고가 될 듯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장점과 서방 교회의 장점을 병합하면 참

체되어 있는 현 한국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방콕에서 머문 후 목적지인 인도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캘커타에 도착하였습니다. 처음 우리는 YWCA에 일주일 머물면서 빈민촌을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캘커타는 인구 약 천만명 정도의 도시로 인도내에서도 가장 빈민이 많은 곳이며 방글라데시인과 같은 인종의 방글라데시인과 인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힌두인과 그 외에 한국인과 얼굴 모습이 비슷한 몽골리안 계통의 버마인, 네팔인 등이 서로 함께 어울려 사는 다인종 도시입니다. 종교로는 대부분이 힌두교이고 기독교인은 약 3%가 되고 150개의 교회가 캘커타에 있지만 제가 인도에 있는 동안 약 10개 정도의 인도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대충의 교인수를 계산한 결과 그 수는 0.1%에도 못 미치는 듯하였습니다.

인도는 법적으로 외국인 선교사가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선교사에게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비자로 3개월을 들어와서 비자 만료 전에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관광비자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캘커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과 교제할 수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비자를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환경과 음식, 그리고 선교 자체의 어려움 말고도 이 문제로 인하여 상당히 조심하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인도인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좋고 외국인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선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도 국민의 종교관이 모든 종교에 대하여 관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저들을 복음화

하는 데 장애도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역이나 거리에 붙여 놓은 광고판이 그 좋은 예입니다. 내용인즉 힌두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우리 종교의 신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신론적인 여러 하나님들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이 200년간 인도를 지배하며 함께 기독교를 전파했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반감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우리가 일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저들 가운데에 있는 듯했습니다.

저희는 캘커타 변두리에 있는 YM숙소에 머물면서 여러 빈민촌과 시내에 나가 간단한 복음송과 율동 등으로 사람들을 모은 후 간증과 드라마, 짧은 복음적인 설교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일대일 혹은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다를 가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한 많은 호기심으로 해서 사람을 모으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알기에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한두 사람 대동하여 의사소통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캘커타에서는 방글라데시어와 힌두어로 쓰여진 전도지까지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여야 되었습니다. TV방송, 신문, 극장 등 모든 것이 각 언어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한국 선교사나 인도 젊은이들과의 많은 대화 가운데에서도 의견을 같이하였지만 인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선교는 교육선교인 것 같습니다. 구제와 의료 또는 교회도 좋은 선교의 방법이겠으나 수많은 걸인과 집 없이 길에서 사는 무수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면에서도 교육사업이 아마도 가장 좋은 선교의 방법이겠습니다. 유럽의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한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학교 책임자와 개인적으로 학교운영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 자료로 한국 선교사(재금 벤민촌에서 학교를 시작했음)와 학교운영에 관한 계산을 해보았는데 200명 정도의 학생을 무료로 가르치며 20여명의 선생님과 직원을 채용하고 전 학생에게 점심, 50여명의 학생에게는 기숙사와 세 끼의 식사를 제공하고 1년에 한 번 전교생에게 교복을 지급하며 책과 노트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한 달에 학교운영비가 1,500달러 정도가 소요됩니다. 학교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돈으로 5천만원 정도이면 부지와 건물 등

을 무난히 마련할 것 같습니다.

인도에 있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음식과 모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어놓은 밥에서는 심한 분노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으나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냄새를 맡지 않고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관계로 해서 오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수많은 모기 때문에 인하여 화장실에 갈 때에도 모기약을 미리 뿌리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출발 전에 여러 종류의 예방주사를 맞고 매일 설사와 말라리아약을 복용했지만 체중이 8.5kg이 빠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방법론에서 탈피,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고 또 도와야 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역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과 죄송함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를 하였고 또 한편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는 왜 저를 이곳 호주로 보내셨는가 투정 어린 기도도 하였지만 인도에서 돌아올 때는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백지를 들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종이 위에 쓰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호주에 사는 소수민족, 특별히 삼만여 캄보디아인에 대한 관심과 목표가 있었던 바 올 97년에는 구체적으로 캄보디아인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를 통하여 시드니에 캄보디아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본국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는 기초를 닦기 위하여 실제적인 실천을 하는 한해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해입니다. 97년 한해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현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좋은 담임목사님이 모셔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제목

1.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2. 호주 한인교회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3. 세 자녀가 호주사회와 학교에서 잘 융합될 수 있도록
4. 가족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5.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호주에서 이기성 올림